

K-문화재 전문기자의 선구자, 고(故) 우병익(禹炳益) 기자

Pioneer of K-Cultural Heritage Journalism

: The Late Reporter Woo Byung-ik

김태식*

이제 고인(故人)이 된 우병익(禹炳益, 1933~2025) 기자는 한국 문화재 전문 보도의 초석을 다진 인물로, 언론사 속에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온 언론인이었다. 1960년대부터 신라의 천년 고도인 경주에 정착한 그는, 지역 곳곳에서 이뤄지는 고고학 발굴과 문화유산 발견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를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앞장섰다.

그는 단순한 지역 기자가 아니었다. 국보급 신라 유물의 출토를 포함한 중요한 발굴 소식을 발 빠르게 보도하며, 기존 언론계에 존재하지 않던 ‘문화재 전문기자’라는 새로운 분야를 사실상 처음으로 구축하였다. 그의 보도는 단지 빠른 속보를 넘어서, 문화유산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언론의 주요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우 기자의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적 성취를 넘어선다. 그는 문화재를 단순한



〈사진 1〉 우병익 기자의 모습과 특종 기사
(출처: 김태식 기자 블로그 AllaboutHistory)

* 김태식은 연합뉴스 문화재 전문기자로, 1993년 연합통신(현 연합뉴스)에 입사해 17년간(1998년 12월~2015년 6월) 오로지 문화재와 학술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그리고 연합뉴스 문화부장 및 연합뉴스 K컬처기획단장을 역임했다.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를 비롯한 한국고대사 관련 논저를 다수 집필했다. ts1406@naver.com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와 이어지는 공공의 유산으로 조명하였으며, 그의 기사들은 문화재 보도의 지평을 넓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오늘날 ‘K-문화유산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영역의 토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그가 남긴 족적은 매우 크다.

이 글에서는 한국 문화유산 보도사에 뚜렷한 궤적을 남긴 우병익 기자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고, 그가 문화재 보도를 통해 구축해 온 의미 있는 변화와 기여를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1. K-문화재 전문기자의 면모

우병익 기자는 1962년 한국일보 경주 지국에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언론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당시, 국내 언론은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고고학 발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학계나 발굴단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공유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기사는 드물었으며, 문화재 보도는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정치나 사회 이슈 중심의 보도를 해왔고, 발굴 현장은 ‘학문적 탐사의 공간’으로만 인식되던 시기였다. 이처럼 전문 취재의 빈틈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우 기자는 기존의 뉴스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지역 문화유산을 꾸준히 추적하고 기록하는 새로운 언론 방식을 시도했다. 이러한 접근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었으며, 그만의 독창적인 보도 영역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우 기자는 경주뿐 아니라 포항, 울산 등 신라 문화권 일대의 주요 발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현장에서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도하는 원칙을 세웠다. 단순히 공식 발표 이후의 결과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물이 출토되는 순간의 현장 분위기, 고고학적 해석,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반응까지 담아내는 ‘현장 밀착형 보도’ 방식을 통해 문화재 뉴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발굴단과의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발표 이전에도 현장의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며 보도에 반영했다. ‘문화재는 취재 대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실질적 사례로 답한 최초의 기자였다. 나아가 그는 발굴 과정에서 이뤄지는 복잡한 정보들을 일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재구성해, 문화재 보도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시도는 단순한 지역 특종 경쟁을 넘어, 문화유산을 사회적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

리는 데 이바지했다. 그는 문화재를 과거의 유물이 아닌,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사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공공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언론적 실천을 이어갔다.

우 기자의 이러한 활동은 한국 문화재 저널리즘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취재 방식은 고고학, 문화재 행정, 지역 관광 등의 분야와도 연계되며,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문화유산 생태계’ 형성의 초기 틀을 마련하는 데도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그는 한국 언론사 속에서 ‘문화재 전문기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확립한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확장된 ‘K-문화유산 보도’의 선도적 실천자로 평가받고 있다.

2. K-문화재 보도의 특종

고(故) 우병익 기자는 한국 고고학과 문화재 보도사에 있어 전환점을 만든 인물이다. 그의 가장 두드러진 공적 중 하나는, 국내 주요 유적과 유물 발굴 현장에서 이루어진 획기적인 발견들을 누구보다 먼저 기사화한 점에 있다. 단순히 보도의 속도에서 앞섰다는 차원을 넘어, 문화재 보도에 새로운 감각과 문제의식을 불어넣고 전문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의 기사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학계 중심의 정보 유통 구조를 넘어,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의 벽을 허물며 문화유산을 사회 전체의 자산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보도 행위는 이후 언론계가 문화재 분야를 독립적인 취재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우병익 기자의 특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보 천마총 금관 발굴’ 보도이다.

1970년대, 경주에서 신라 고분이 대대적으로 발굴되던 시기, 우 기자는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의 존재를 가장 먼저 포착해 대중에 알렸다. 이 유물은 신라의 예술성과 왕권의 상징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으로, 그 발견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컸다.



〈사진 2〉 천마총 발굴의 모습

(출처: 김태식 기자 블로그 AllaboutHistory)

그러나 더욱 주목할 점은, 당시만 해도 발굴 현장에 언론인이 접근해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극히 드물었다는 사실이다. 우병익 기자는 학술단보다 앞서 중요한 유물의 출토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라 고대 문화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그의 이 특종은 단순한 고고학 뉴스가 아닌, 문화적 자긍심을 자극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신라 금관은 이 보도를 통해 한국인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우 기자가 보도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종은 울산 울주군에서 발견된 천전리 암각화이다. 발견 초기에는 이 유물이 가진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지만, 우 기자는 현장을 직접 조사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도함으로써 그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그는 이 암각화가 단순한 선사시대 흔적이 아니라, 한반도 고대인의 감성, 사유 체계, 상징 언어가 담긴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이후 그의 기사를 계기로 암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 유산은 국제적인 비교 연구의 대상이자 보존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 기자는 정보의 전달자일 뿐 아니라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한 ‘언론 속 해설자’의 역할을 해냈다.

아울러 우 기자가 남긴 중요한 특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영천 청제비 발견’ 보도이다. 1968년 한국일보사 주관 신라 삼산 학술 조사단이 영천 청못 주변에서 신라 시대 제방 축조와 치수(治水) 활동을 기록한 비석을 발견했을 때,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대중에게 전한 이가 바로 우 기자였다.

‘영천 청제비’는 신라의 수리 기술과 국가 차원의 치수 정책을 연구하는 매우 중요한 일급 사료로, 그 발견 자체가 신라사 연구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했다. 우 기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는 이 비석의 학술적 가치가 초기 단계부터 널리 알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후 학계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고고학 발굴과 사료적 발견의 긴박한 순간을 기자적 언어로 번역해냄으로써, 발견의 현장을 역사적 의미의 장으로 전환시키는 언론적 실천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우병익 기자가 남긴 주요 보도들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새로운 서사로 구성해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그는 유물과 유적을 단순한 과거의 유산으로 보지 않고, 오늘날 한국인의 정체성과 직결된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재해석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확산시켰다.

그가 만들어낸 특종들은 오늘날 ‘K-문화유산 보도’라는 영역의 원형이 되었으며, 문화재 보도가 단순한 기사 작성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행위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3. K-문화재 전문 기자의 영역을 만든 우병익 기자

우병익 기자의 언론 활동은 단순히 발굴 현장을 전달하는 기자의 역할을 넘어섰다. 그는 문화유산 보도의 영역에서 ‘사건을 보도한 사람’ 그 이상으로, 한국의 문화재를 해석하고 기록한 공공기록자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당시 발굴 현장은 일반적으로 학술조사단의 영역으로 여겨졌고,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인 공간이었다. 하지만 우 기자는 발굴을 주관하던 연구자들과 긴밀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학자들과 거의 동시에 유적과 토층을 관찰하며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유적의 역사적 맥락과 학문적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사회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지식 전달자이자 해석자의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그는 특히 문화재 ‘발견’이라는 사실과 이를 ‘해석’하는 과정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고고학 현장에서 논의되는 연대 추정이나 층위 구조, 유물의 상징성 등 전문적인 내용을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냈으며, 생생한 현장감과 함께 명료한 설명을 제공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한 정보 보도와는 다른 차원의 문화유산 서사화 작업으로, 문화재 보도의 새로운 언어와 감수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우 기자의 활동은 한국의 문화재 행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던 1970년대, 문화유산의 공공성을 미디어로 구현한 선구적 사례로도 평가된다. 당시만 해도 문화재 조사 과정이나 유물의 처리 방식, 유적의 의미 등 핵심 정보는 학술기관이나 일부 전문가 집단 내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이처럼 제한된 정보 환경에서 우 기자는 언론을 통해 발굴 현장의 내용을 사회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문화재를 더 이상 ‘전문가의 자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그의 기사들은 문화재 행정이 체계화되기 이전 시기에 작성되었음에도, 오늘날까지도 학계와 행정기관이 참고하는 1차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발굴 당시의 현장 사진, 유물 설명, 기록된 발굴 상황 등은 이후 작성된 공식 보고서로도 대체할 수 없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문화재 기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점은 우병익 기자의 대표적인 공적 중 하나다.

결국 그는 단지 ‘문화재 기사를 전문적으로 쓰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형 문화유산 저널리즘의 시초를 연 인물이었다. 과거 유산의 의미를 현재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문화재를 사회적 이야기로 확장하는 K-스토리텔링의 원형을 만들어냈으며, 이로 인해 문화유산이 공공 담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의 활동은 곧 한국 문화재 저널리즘의 탄생이자, 문화유산을 대중적 언어로 전환해낸 역사적 실천으로 기억될 것이다.